

## 미국-멕시코 국경: 광기와 감금의 미학\*

이 은 아  
서울대학교

이은아(2017), 「미국-멕시코 국경: 광기와 감금의 미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8(2), 117-142.

**초 록** 이 글은 볼리비아계 라티노 작가인 에드문도 파스 솔단(Edmundo Paz Soldán)의 최근 작인 『노르테 Norte』를 중심으로 폭력과 범죄 이면의 광기, 이를 억압하기 위해 생명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적/탈국가적 방식의 수용과 감금에 대해 다룬다. 이야기 주인공인 두 명의 실존 인물들은 20년대 브라세로 노동자와 80년대 미-멕시코 국경을 넘나든 멕시코인 범죄자다. 이들은 기차라는 교통수단을 통해 미국 영토를 움직이며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정신분열증과 감금이라는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고통스런 생애의 끝을 맞는다. 작가는 정상성에서 일탈을 한 '비합법적 체류자들', '미등록된 이주자들'이 자유가 박탈된 극한 상황 하에서 보여준 미학적 반란 혹은 추악함의 미에 주목한다. 파스 솔단은 광기와 감금이 이야기하는 통제의 틈새에서 생겨나는 반복된 기억과 생존의 의지, 저항의 뒤틀린 욕망 등이 창조와 미학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핵심어** 『노르테 Norte』, 에드문도 파스 솔단(Edmundo Paz Soldán), 광기, 감금, 미-멕시코 국경, 철도, 비합법적 체류자

\* 이 논문은 2016년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I.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장담했던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이민자 추방이 본격화되면서 그의 행정조치를 과거 대공황기에 있었던 대규모 추방에 비유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광기어린 통치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 내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멕시코 이민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국가적 차원의 송환 조치는 뿌리 깊은 ‘반멕시코 감정(Anti-Mexican sentiment)’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장벽 설치의 광기로 치부될 만큼 비판이 거세지만 역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크다.

불법이민자 단속과 추방은 이미 이전 정권들에서 줄곧 행해진 일로서,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운영하는 구류센터의 부족으로 사립 구금시설의 경제성이 높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감금자의 규모가 상당하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 국외로 송환된 비합법적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송환 이전까지 구금을 해 둘 시설이 부족하자 사설업체의 기관을 임대했는데, 그 결과 사설보안서비스와 밀입국자 억류센터가 성장사업으로 각광받게 된 것이다(장세용 2014, 336).

미-멕시코 국경을 둘러싼 폭력과 범죄라는 키워드는 밀입국 과정과 검거,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등을 통해 익히 잘 알려진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폭력과 범죄 이면의 광기와 이를 억압하고자 생명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적/탈국가적 방식의 수용과 감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볼리비아계 라티노 작가인 에드문도 파스 솔단(Edmundo Paz Soldán)의 최근작인 『노르테 Norte』가 주된 분석의 자료가 될 것이다. 작가는 “미국의 광활함 속에 사라져간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소설을 창작했다고 후기에서 밝히고 있다. 미국의 국가 형성과 발전의 수단으로 삼았던 철도 건설에 동원되었던 이민자들이 그 기차로 인해 사회로부터 축출당하고 인간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이 작품을 통해 그려진다. 미국 땅의 광범위함 속에서 머물다 사라질 파스 솔단 역시 이 소설의 일부에 작가 스스로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깨진 꿈 앞에서 예술과 범죄의 길을 걸은 이들의 비극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책무와 위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야기의 주를 이루고 있는 두 명의 실존 인물들은 20년대 브라세로 노동자와 80년대 미-멕시코 국경을 넘나든 멕시코인 범죄자다. 얼핏 보기에 상관성이 적어보이는 이들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국경 저쪽에서 발현된 광기와 감금이다. 기차라는 교통수단을 통해 미국 영토를 움직인 주인공들은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중국에는 정신분열증과 감금이라는 유사한 과정을 통과하며 고통스런 생애의 끝을 맞는다. 서로 다른 동기와 착란, 사회적 처벌을 겪었지만 이들에게서 이민자 세대를 거치며 반복되는 비극적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실존 인물들이 보여준 저항 혹은 반란의 코드, 반복적 모티브의 예술 생산과 정신착란에서 기인한 메시아적 환상, 이것을 미국 사회의 처벌에 맞서는 일탈적 이민자의 미학적 반란으로 볼 수 있을까? 이 두 실존 인물 외에 작가는 현재를 사는 가공의 인물들을 만든다.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인 동시대 주인공들은 모두 어떤 비극적 패러다임에 얽혀 있는 것처럼, 지면과 화면을 통해 과거의 인물들과 조우하게 되고 이들의 과거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일에 관여한다.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그들의 삶을 움아매고 있는 집착과 광기가 만들어내는 경계에 갇히거나 혹은 경계 너머의 세계로 사라진다. 이런 삶의 양식이 미국과 멕시코,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국경을 넘나들을 통해 획득한 이민자라는 지위와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이들을 하나의 끈으로 아우른 작가는 정신병자와 범죄자의 미학적 저항과 반란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비정상적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광신적 움직임과, 주체들의 균열과 불안의 지점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작가의 문학적 시도를 논의해 봄으로써 박탈에 맞선 저항의 정치적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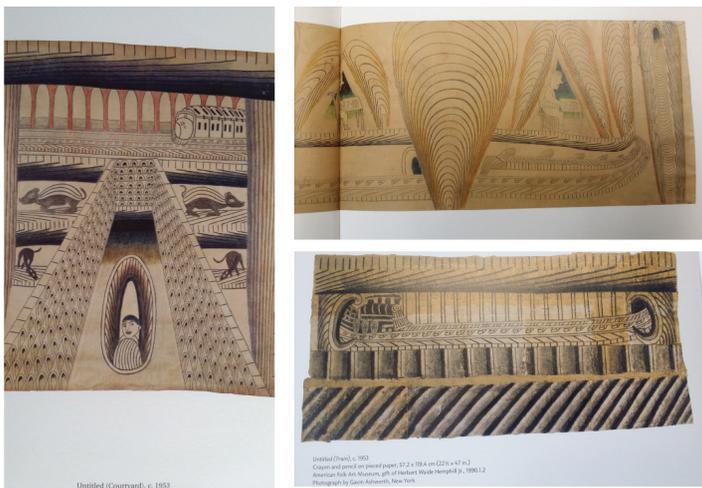
### 1. 트라케로의 천재적 예술성

이야기의 한 축인 마르틴 라미레스(Martín Ramírez)는 90년대 이후 천재적

아웃사이더 예술가<sup>1)</sup>로 평가받고 있다. 생전에는 정신분열증 예술가로 주목받았다. 그에 관한 전기적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멕시코에서의 기록이 별로 없는데다 미국에서 언어 능력을 상실한 탓에 신상정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895년생 멕시코 할리스코 출신으로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나 빚에 시달리다 못해 도미하여 철도 노동 현장에서 혹사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공황 이후 1931년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 공원에서 노숙자 신세로 지내던 중 현지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 부랑아라는 죄명으로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수감되었고, 이후 신분조사 과정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1935년 드윗 주립(Dewitt State) 병원으로 이송된 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지내다가 40년대 중반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전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병원 내 잡다한 재료들을 이용해 소규모 사이즈의 그림을 그렸지만, 초기 작품은 상당부분 폐기되었다. 50년대 초반 타르모 파스토(Tarmo Pasto) 새크라멘토 주립대 교수가 우연히 그의 재능을 인지하고 작품 활동을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63년 사망하기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으나 가족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외롭게 사망했다.

20년대 애리조나 지역을 관통하는 산타페 철로, 혹은 그가 노동했을 가능성이 큰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수로 건설 사진을 그의 작품들과 나란히 비교해 보면 그 유사한 패턴에 놀라움과 연민을 감출 수 없다. 그의 정신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선로와 터널 이미지는 노동의 강도에 대한 절규임에 틀림없다. 이성 세계 너머 영역에서조차 이렇게 집요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체가 그의 정신적 취약함이나 분열증, 혹은 예술가적 집요함에 대한 근거라기보다는 혹독한 철로 건설과 보수 작업 현장에 던져진 한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착취에 대한 반증

1) 아웃사이더 예술은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의 아르브뤼(art brut)에서 기인한다. 아이들의 드로잉, 슬럼가 벽의 낙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들의 그림 등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모든 종류의 개인적 경험의 즉각적인 기록에 관심을 가졌는데 장 뒤뷔페는 이러한 작품들을 살아있는 미술, 원생 미술로 뜻하는 아르브뤼라고 지칭했다. 원래 정신병동이나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좁은 의미인데, 요즘엔 조금 더 넓게 주류와 접하지 않는 미술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되었다(<http://blog.naver.com/songdw1701/220042104756>).



〈그림 1〉 『마르틴 라미레스: 감금의 프레임만들기』에 실린 작품들

으로 읽힌다.

그의 예술 작품을 관통하는 일관된 모티브는 철로와 터널, 책상 앞에 있거나 말을 탄 남자, 과달루페 마리아 상 등이다. 그림의 소재를 통해 이주, 기억, 전치, 소외, 고독 등을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사용된 조개 무늬의 기하학적 문양이 선로를 연상시킨다.<sup>2)</sup>

단순화된 철도와 터널 모티브는 라미레스 미학의 근간을 이루지만 미국 자본주의 발흥에 대한 이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대륙횡단철도가 완공된 이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철도 나라가 되었고, 노선과 지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앞다투어 진행되었기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세계로 탈바꿈하였다. 퍼시픽 철도법에 따라 횡단철도에 쓰이는 철강은 미국산만을 쓸 수 있었기에 철강 산업이 대약진을 하게 된다(박흥수 2015, 260-261). 철로의 확장에 따라 이민 노동력이 대거 투입되었고, 라미레스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림에 반복되는 선로의 직선성은 이중적으로 읽힌다. “(기차)가 열어 놓은 평면 위에서 자

2) 아래의 그림은 『마르틴 라미레스: 감금의 프레임만들기 *Martín Ramirez: Reframing Confinement*』에 실린 작품들이다. 129쪽(좌측), 113쪽(우측 상단), 87쪽(우측 하단).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1950년까지 약 13만 명의 트라케로스가 있다고 한다. 1920년대 최초의 치카노 소설로 알려진 『돈치포테의 모험 혹은 앵무새가 젖을 먹일 때 *Las Aventuras de Don Chipote o, Cuando los pericos mamen*』에는 트라케로스의 희생과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적이지 풍자적으로 실려 있다. 주인공인 돈치포테가 애리조나 지역의 ‘산타페 철도’에서 노동을 하다가 다리 부상을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작가인 다니엘 베네가스(Daniel Venegas)의 자전적인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설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시의 근로 조건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르틴이 빛과 일자리를 걱정하며 길을 잃고 한 철도역에 들어가 현실 감각을 점점 상실해가는 소설의 장면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르틴은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기존 유파나 지향과 상관없이 창작활동을 펼치는 아웃사이드 예술가에 속한다. 후반기 작품에 이르면 스타일이 보다 실험적이고 안정적으로 되는데, 전문가들은 정신분열증의 영향력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미학적 가치에 온전히 주목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작품 전반은 두뇌의 일부분이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광기의 표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천재적인 표현성을 보여준다. 분열적이라기보다는 명상적이고, 환각적이라기보다는 비판적이지, 흰색 공간에 대해서도 집착적이라기보다는 통제적이기 때문이다.

파스 솔단은 『노르테』에서 마르틴이 왜 입을 다물게 되었고, 어떤 동기에 의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여러 일화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작가는 마르틴의 독백과 전지적 시점을 통해서 그가 느꼈을 공포와 폭력의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한다. 그의 상상력에 의하면, 마르틴은 구어의 상실을 시각 언어의 획득으로 보상하면서 자기 보호의 수단을 획득하게 된다. 수용된 병원 밖을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주어진 운명처럼 자신에게 지정된 공간을 견디기 위해 그림이라는 피신처에 기거하게 된다. 즉, 철로와 병원의 흰 공간으로부터 화지로 인식의 중심을 옮기면서 본인의 의지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마르틴의 실존 인물인 라미레스의 사례는 주로 밀입국자들의 죽음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경 중심의 생명정치 분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밀입국자는 추적과 송환의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위기를 겪고 심리치료 대상으로 ‘예외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불법성에 기반한 생명정치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장세용 2014, 339). 그럼에도 포괄적 의미에서 “주권성을 재형성하고 재정립시키는 과정에서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일에 집중”(버틀러 2016, 270)하는 생명 권력은 이들 이민자 전체에게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라미레스와 같은 불법이민자들은 개인과 집단 전체에 작동되는 주권-훈육-통치로 이뤄진 권력 형태<sup>3)</sup>의 보다 명시적 대상자들이다. 라미레스의 수용은 사회와의 유리를 통해 고국과 가족의 치료를 차단시킴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라미레스가 경찰에 의해 구금되고 이후 병원에 송치되는 과정은 범죄학의 낙인 이론에서 말하는 낙인 효과가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낙인효과는 외국인 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현상인데, 이민과 범죄와의 인과적 관계 속에서 상징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김정규 2013, 163). 그러나 파스 솔단은 라미레스의 삶을 허구화하면서 이와 같은 생명정치의 작동에 관심을 환기시킨다기 보다는 어떻게 한 개인이 권력의 박탈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sup>4)</sup>

작가는 마르틴이 “계속되는 효과, 즉 대칭을 좋아했다”(141)라고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화가의 미적 선호로 해석하며 이야기를 진행해 간다. 나약한 이민자가 과거 노동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술적 감성을 발

3) 「생명정치란 무엇인가」의 「생명정치 분석학을 위한 백가쟁명」 참조. 생명정치의 계보에서 푸코가 분석한 이 세 권력의 형태는 강조점을 달리하며 유지되고 있다.

4) 버틀러는 감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일한 저항이란 주체 그 자체를 허무는 실천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한 생명으로서의 스스로를 박탈하는 것은 강압적이고도 탈취적인 힘으로부터 그와 같은 형태의 권력을 박탈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234)라고 저항의 실천에 대해 설명한다.

현시키는 데 그 동력이 병원의 흰 벽과 열악한 시설, 전기 고문 등의 강압적 병원 치료였음을 상상적 재현을 통해 보여준다.

마르틴은 대신 눈을 닫고 그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이 그를 의사가 있는 방으로 데려가 케이블에 묶으려 하면, 마르틴은 골똘히 생각해 의사를 사라지게 했다. 전기는 그를 괴롭혔고, 그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지만 이걸 불가능했다. 의사들, 간호사들, 벽과 정원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나았다. 의사가 나가도록 하는 건 훨씬 복잡했다. 항상 어느 곳엔가는 의사가 있었다. 머리가 쭈시지 않으면 심장이 망치처럼 변해 그를 때렸다. 피부를 수축시키는 화장실의 찬물이나 피부를 벌겍게 만드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면, 그림을 그리고 싶게 만드는 흰 벽의 방에서 생기는 전기 충격이 그를 뒤 흔들었다.(141-142)

이렇듯 작가는 세상으로부터의 사라짐을 선택적 시도, 혹은 주도적 격리로 해석한다. ‘말할 수 없음’과 ‘말하지 못함’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마르틴의 의식 세계로 들어가 마치 이해가능한 판단과 의지가 개입한 행동인양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틴의 미술은 이제 기억에 의한 예술로 평가받는다. 작가는 마르틴이 화가로서의 꿈을 타국의 병원에서 이루게 되는 비정상적 과정을, 환자로서의 고통과 가족에 대한 배신감, 고향에 대한 두려움, 후원자 교수와 이별한 이후의 외로움 등을 통해 전개한다.

## 2. 철도연쇄살인범과 비극의 대물림

마르틴의 이야기와 병행해서 전개되는 헤수스의 이야기는 마치 범죄소설의 일부처럼 폭력 장면이 많이 할애되어 있다. 헤수스의 실제 인물은 앙헬 마투리노 레센디스(Ángel Maturino Reséndiz)라는 철도 연쇄살인범(Railroad Killer)으로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진 멕시코 출신 범죄자다. 그는 1990년 이후 미국과 멕시코 사이를 화물열차로 넘나들면서 15명 이상의, 주로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살인을 저지른 장소가 철로 주변이었기 때문에 살인범 앞에 철도라는 명사가 덧붙여졌다. 화물칸은 한때 멕시코 철도 노동자들에게는 생존 경제의 수단이자 심지어 열악한 거주 공간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최악의 욕구

를 법적, 사회적 규제 없이 분출하도록 만드는 살인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sup>5)</sup>

『노르테』 첫 장의 헤수스는 멕시코 북부의 ‘비야 아우마다’라는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15세의 비행 청소년으로 점차 살인의 광기에 사로잡힌 범죄자에서 이단적 광신자로 변화해 간다. 헤수스는 청소년기부터 여성에게 성적으로 거부당할 때 일말의 주저함 없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광기를 보여준다. 살인을 저지른 후 미국에서 훔친 차량을 멕시코로 운반해 판매하는 범죄 집단에 가담하여 월경을 일삼는데, 도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수차례 여성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레센디스는 자신이 육화한 천사라고 믿으며 죄악에 대한 처벌과 복수의 환각 증세를 보였다. 1998년 벤톤 강간 살해로 인해 살인죄가 구형되었을 때, 정신병 이유를 들어 구형을 정지해 달라는 인권 단체의 탄원이 있었으나 결국 2006년 집행이 되었다. 그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심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옥 속에서 보여준 조현병 증세로 인해서 인권적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는 법리적 소견과 변호하는 시선이 생겨났다. 이에 더해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 폭력에 노출되었던 점, 수감 중 각종 폭력에 시달렸던 사실, 또한 19세부터 정신분열적 증세를 보였던 이력에서, 범죄자를 단순히 단죄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동이 걸렸던 것이다. 범죄로 내몰린 개인에 대해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치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레센디스를 보다 복합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파스 솔단은 상관없이 보이는 이 두 주인공들을 통해 미-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비극적 대물림을 보여주고자 한다. 1931년생 마르틴과 1969년생 헤수스(실제 인물은 1959년생)는 그들에게 고통과 희생의 트라

5) 미-멕시코 국경까지 향하는 철도 노선은 불법이민자들의 이동 수단으로서, 매년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의 열차’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다. 열차 천장까지 빼곡하게 차운 행하기도 하다가 전복 사고가 발생해 생명을 잃기도 한다.

우마를 안긴 미국의 철도를 복수의 수단과 상징으로 바꿔놓는다. 세대를 내려 오며 삶의 비극성이 점차 중첩된다. 개인적 고통에서 출발해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 진화하고, 단순한 희생자에 머물지 않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회적 괴물로 변화한다. 마르틴은 고독과 배신의 감금 생활 후 자연사를 하지만 헤수스는 폭력의 자행 끝에 사형에 의한 인위적 죽음을 맞는다. 즉 한층 더 악화된 운명의 최후를 맞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감금 상태를 만든 병원에서 신체적 감금을 강제한 감옥으로, 그 폭력과 억압, 규율의 정도 또한 강화된다.

1977년도 작품으로 브라세로 노동자를 다룬 영화 <알람브리스타 Alambrista>도 브라세로 노동자의 비극적 대물림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철도 이동 장면이 충격적인데, 멕시코계 노동자와 철도 사이의 비극적 관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멕시코 불법 노동자인 주인공은 친구와 함께 철도 화물차 외부 아래 널빤지를 깔고 누워서 이동하다가 기차가 정차를 하자 친구가 사라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해 한다. 주인공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노르테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아버지의 죽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브라세로 노동자가 마주할 운명의 종점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발작적 반응을 일으키며 불법노동자 단속에 나선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귀향길에 오른다. 브라세로 노동자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동일한 노동과 굴레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암시하는 지점이다. 헤수스의 아버지 또한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르틴 자신은 정신 병원에서 죽음을 맞으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두 인물에게 철도는 일차적으로 생존의 경계를 가능케 한 수단이였다. 그것은 노동의 현장이자 물자와 인력의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마르틴과 헤수스는 기차를 통해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 남서부 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동안, 철도가 멕시코 노동자들을 이 나라의 다른 일터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통로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헤수스는 기차라는 이동 매체를 통해 감시라는 주권의 사각지대, 비정상의 통제를 교묘히 비껴가면서, 사법적 처벌과 정체성 발각의 위협 앞에서 불안정한 삶을 연장하는 아슬아슬한 가능성을 선택한다.

파스 솔단은 그가 해방의 기차 안에서 만끽했을 자유와 함께 죽음의 기차 안에서 느꼈을 외로움,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교차시킨다. 헤수스에게 국경이 너무, 노르테는 마음껏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영토이자 죽음의 선교 장소로 변한다.

이 광활한 영토가 그의 것 인양 드러나들었다.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았다. 그의 몸은 그들이 지니지 않은 민첩함이 있었다. 코요테들에게 구입한 위조된 사회보장 카드, 훔친 운전면허증, 심지어 도서관과 체육관 출입증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약점을 알았다. 멕시코처럼 사방에 무기가 깔려 있고, 거의 매일 폭력이 일어난다. 그러나 멕시코와는 다르다.(192)

위의 인용은 헤수스의 완전한 이중생활을 보여준다. 그는 미국에서 더욱 더 강력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멕시코에서 정체성이 발각되지 않고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위장된 삶의 조건을 조성한다. 노르테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않은 채 범죄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의식적 탈주를 위협의 극단까지 감행한다. 그러나 멕시코로 돌아오면 다른 인물의 가면을 쓰고 새로운 범죄로 이끄는 동기를 찾기 위해 심리적 평정심을 회복한다. 이런 측면에서 헤수스로 대변되는 라틴아메리카의 어두운 면은 노르테에 의해 추동되고 조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장르소설과 경계문학

이 작품을 라티노 경계 문학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 무리가 없다. 작품의 배경과 소재 등이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것에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스 솔단은 멕시코계 이민자가 중심인 이 작품을 통해 다원화된 라티노 이민자 정체성을 재현할 필요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경계 문학에서 그가 가장 크게 기여한 바(Sánchez 2016, 484)라고 얘기할 수 있다. 경계문학의 대상에서 비껴난 사람들, 즉, ‘노르테’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선량하지 않은 이들,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아들, 헤수스처럼 극단적 증오에 휩싸인 범죄인들, 이런 이들을 재현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근본

적으로 제기한다. 이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 또한 국가적 틀을 벗어나기에 사회적 규범 또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작가는 또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라티노 군상을 사실적으로 투영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볼리비아 출신 라티나인 미셸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것과 달리 그녀의 아버지는 볼리비아로의 재이민을 꿈꾸면서 가족과 불화를 일으킨다. 아르헨티나 출신임에도 파비앙은 라티노라는 정체성을 지녔는지 불확실하고, 멕시코계 텍사스인 페르난데스는 치카노 이민자와는 다른 보수적 사회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출신과 삶의 궤적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의 개인성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경계문학은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 내에서 겪는 고통과 희생, 차별에 집중함으로써 서사의 빈약과 소재의 고갈을 드러낸 측면이 있다. 그래서 파스 솔단은 라티노 이민자들이 구축해 온 고유한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록되지 못한 라티노 비주류를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은 라티노 이민자라는 복잡한 역사의 일부다. 우리 공동체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에서 벗어난 이들을 신화에 포함시킬 만큼 성숙해졌다. 긍정 혹은 부정의 평가와 상관없이 복잡한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투쟁해 온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 무얼 의미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sup>6)</sup>

경계문학의 전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사의 역동성과 영화적 속도감을 지닌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파스 솔단은 장르문학의 묘미를 이 소설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자서전, 범죄소설, 공포소설, 메타소설 등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혼합하여 일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대중 소설의 경향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좀비를 주제로 하는 만화책 내용이 소설의 여러 장에 걸쳐 언급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디스토피아적 재난 상황을 빗대기 위해 좀비를 도입시켰는데, 그 상황을 제압하는 복수의 화신을 라티노 주인공으로 만듦으로써 일종의 히어로물이 연상되도록 만들었다. 미셸은 좀비라는 소재를 통해 후안 룰포의 「루비나」라는 단편을 패러디한다. 「루비나」라는 동일 제목의 만화에

6) <https://www.kirkusreviews.com/features/edmund-paz-soldan/>

서 초능력을 지닌 도서관 사서인 주인공 사만타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죽인 좀비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 그녀는 뱀파이어, 좀비, 늑대 인간들이 장악한 이 세상을 정화하는 데 집착한다. 만화의 배경으로 언급되는 장소는 “종말이후 (포스트아포칼립스)의 영토로 강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뉜 곳”(207)인데, 마맥 국경지대의 리오그란데를 쉽사리 연상시킨다. 3인칭으로 서술되는 마르틴과 헤수스의 이야기와 달리 미셸의 일화는 1인칭 서술 시점으로 전개된다. 그녀는 파비앙의 전 연인이자 제자로서, 박사과정을 중퇴한 후 피자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만화 습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를 중심으로 과거 실존 인물들이 현재 속으로 복원되기 때문에<sup>7)</sup> 가상의 현실이 오히려 작가가 속한 라티노의 현재와 내면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좀비 소재에서 알 수 있듯이 파스 솔단은 대중이 애호하는 B급 문화를 의도적으로 표출되도록 만든다. “좀비나 전염병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 텍스트의 범람은 최근 전 세계의 문화적 코드다”(조선일보 2013.3.19)라는 기사의 분석처럼, 최근 들어 자연적 혹은 인공적 재난이 반복되면서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에 가속도가 붙은 탓인지 과학 좀비 열풍이라 할 정도로 많은 수의 작품이 생산되었다. 작가 또한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데, 미셸의 만화 내용과는 별개로 외국인 타자를 좀비로 지칭하는 장면 또한 포함시키고 있다. 멕시코계 텍사스 주민인 페르난데스는 마르틴과 같이 “국경을 넘는 범죄자들은 적국에서 보낸 좀비들과 같다”(234)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좀비들이 판치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은 “피를 빨고 나면 국경 밖으로 사라지는 이들을 절대로 생포할 수 없다”는 페르난데스의 확신에서 보다 생생하게 구체화된다. 그는 불법이민자 범죄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INS, 국경경비대, FBI의 무능력을 한탄하지만, 막상 자신이 불법이민자를 검거해야 할 상황 앞에서는 인간적인 고뇌와 동정심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드러낸다. 좀비들의 무질서와

7) 미셸은 정신분열증 예술을 공부하는 연구원 친구 샘과 만나 마르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헤수스의 기사를 읽는 등 소설의 모든 주인공들이 서로 관여하도록 복선을 만든다.

폭력에 대한 혐오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동포적 이해로 인해 오히려 한층 사실적으로 전달된다.

이런 파격적인 묘사는 흡사 대중소설에나 나올 법한데, 작가의 의도는 불법 이민자들을 공포를 자아내는 좀비, 즉 끝도 없이 몰려드는 새로운 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국가권력, 혹은 주류사회의 인식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다. 이보다는 디스포피아의 음울한 환타지를 만드는 그의 서사적 전략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좀비는 60-70년대는 ‘살아있는 시체’로 노동자를 상징했지만, 90년대에는 소비에 매몰된 무비판적 시민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상에서 조정당하는 일군의 네티즌으로 비유된다.<sup>8)</sup> 그래서 공포를 만드는 좀비는 세뇌된 인간이나 소외된 존재를 넘어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가의 경계를 넘는 불법 이민자라는 생각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비라는 문화적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파스 솔단은 이 시대의 공포와 폐허의 사회상을 그리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감수성을 스며들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작품이 라틴아메리카의 거대한 두 갈래의 전통, 즉, 탐험의 전통과 종말론적 전통을 잇는다. 우리 시대를 결정짓는 두 개의 양식을 혼합해 이제 심연이라는 경계에 다다른 탐험을 수행한다”<sup>9)</sup>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파스 솔단의 국경지대는 티후아나를 배경으로 하는 볼라노의 소설 『2666』을 연상시키는데, 종말론적 분위에 대한 묘사도 그렇지만, 작품에서 볼라노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테 속에서 사라진 라틴아메리칸인들”, 작가는 볼라노의 『아만스러운 탐정들』의 “멕시코에서 사라진 멕시코인

8) 조선일보 기사 “어쩌다 세상은 좀비·전염병에 열광하게 됐나”에서 가장 최근의 좀비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좀비는 기본적으로 폐를 형성하고, 무뇌(無腦)이며, 무한 증식한다. 온라인에서는 거침없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전사이지만, 막상 현실의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보다 같다. 문화평론가 이명석 씨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떼 지어 다니면서 인간을 사냥하는 좀비는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해 하나의 이슈에 몰려드는 키보드 워리어(전사)와 닮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워킹 데드> 방영 당시 ‘현대인이 무방비로 접하는 인터넷과 미디어가 바로 현대의 좀비’라고 보도했다”.

9) <http://eleconomista.com.mx/entretenimiento/2011/11/01/latinoamerica-se-ha-desplazado-norte>



의 문제를 기존의 흐름과는 달리 대중의 B급 정서와 접목시킨다. 이런 서술적 실험성과 정서적 위기감으로 인해 이 작품은 경계 문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새로운 서사를 탐구하는 파스 솔단의 고유한 문학적 경향을 지니게 된다. 작가는 천재적 예술가의 정신병원 수용과 밀입국하는 범죄자의 이중생활에, 정상과 비정상, 사법적 세계의 거부와 생명 권력에 대한 개입을 혼재시키고, 여기에 실존적인 폐허상함과 종교적 분위기를 덧입힌다. 이 소설은 비주류의 광신적 범죄와 망상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문학 경계의 해체를 통해서 새롭게 던진다. 이를 통해 미-멕시코 국경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초점을 둔 경계 문학이라는 좁은 의미의 정의를 거부하고, 인류보편적인 불안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러티브로 나아간다.

#### 4. 광기와 감금의 미학적 가능성

두 실존 인물의 병리적 현상과 일탈은 현재의 주인공들을 통해 보다 일상적이자 현실적인 형태로 지속된다. 볼리비아계 라티나인 미셸과 아르헨티나계 라티노인 파비앙은 실존 인물들을 한 페이지에 불러 모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비록 마르틴과 헤수스의 인지적 경계와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의미의 고통스러운 경계와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ánchez 2016, 486-487). 과거의 주인공들은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차단과 단절이라는 다른 경계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재를 사는 이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내면의 경계에 스스로 갇혀 이것에서 벗어나려는 보다 실존적인 시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모습의 광기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의 상처와 집착을 만든 배신감 혹은 좌절감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정립해 놓은 광기 어린 신념과 싸운다. 파비앙은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거대 담론, 그만의 독보적 해석을 담은 책을 써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린다. 라틴아메리카를 정형화시키는 문학계의 상업적 성과(?)를 거부하고 조롱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작 자신은 전체주의적 틀에 대해 광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겉으로 보기에 사회적·정치적인 것을 주요 테마로 삼



혁명정부가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는 영원한 포로일 것이다. 이것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림을 그리게 내버려 둔다면 대신에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심지어 마리아 산타 아나의 배신까지. 딸들의 부재까지(179); 마리아 산타 아나를 생각했다. 다른 남자와 함께 말을 타고 마을 근처 산맥을 가로질러, 얼굴에 바람이 스쳐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멕시코 정부군을 수호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았다.(27)

마르틴은 그림 속 터널의 끝에서, 잡지의 여성 모델의 얼굴에서 아내의 얼굴을 본다.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에는 크리스테로 전쟁 시 가톨릭 교회를 지지했던 농민들의 맹신과 오해가 뿌리내리고 있어, 그에게 혁명정부는 “미국에서 온 개신교와 프리 메이슨으로 인한 박해자이며 배신자, 하나님과 멕시코의 조국에 반역하는 적”(이남섭 2001, 336)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파스 솔단은 이로써 철도브라세로가 생겨난 보다 큰 역사적 맥락, 즉 멕시코 혁명과 크리스테로 전쟁으로 현재의 비극을 확장시킨다. 『노르테』에서 마르틴의 말하지 않음은 배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 된다. 그는 감금된 상태를 농민반란의 일부로 환치하는 방식을 통해 저항의 내적 프레임을 만든다.

한편, 이름조차 아이러니하게도 헤수스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예수(헤수스: 스페인어로 예수)로 착각하며 마치 계시록을 적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의 폭력과 살인 이면에는 여동생 마리아 루아사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비뚤어진 애정이 깊숙이 파리를 틀고 있다. 마리아 루이사를 향한 왜곡된 성적 집착이 여성 연쇄살인의 계기가 되었기에, 그의 계시록은 그녀에게 바치는 편지이자, 범행과 살인에 대한 자기 항변서이며 죽음을 준비하는 고백문이기도 하다.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치부하며, 지금의 범행이 그들을 향한 복수어린 각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결과라는 점을 고백한다. “나는 복수를 하는 천사다. 언젠가 이 땅의 한 주민이 일어나는 그 날이 오면 내가 그 유일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영생을 누리는 자. 짐승들, 짐승들, 전부 죽여야 해”(131).

헤수스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패러디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악에서 구하지 마소서”(111)라는 웅얼거림을 반복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극단적

범행은 단지 “호명할 수 없는 분(Innombrable)”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헤수스는 이 땅의 죄악에 대해 단죄자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살인은 단지 “모두 죽여(Kill Them All)”라는 환청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스스로를 구원자로 광신한다. 마치 인간 세계를 배반하고 미국의 종교적 기반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다. 기차에 또 다른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는 마지막 글에서는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돌아오지 않는 기차 안에 있다. 여기서 내릴 수 없지만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278)라고 예언하며 예수의 부활을 모방하고자 한다.

레너드 카수토는 20세기 미국 범죄소설사를 저술하면서 연쇄살인범을 주인공으로 하는 범죄소설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가족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하기 때문에 범인은 반가족적 인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공감적, 반가정적, 반감상주의적 인물인 “연쇄살인범은 개인, 가족,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미국 범죄소설 작가들의 묵상 또는 강박의 절정을 표상한다”(442)고 카수토는 분석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파스 솔단은 미국의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하며 가족의 이미지를 난도질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국가적 괴물로서의 연쇄살인범”(448)인 헤수스를 비록 위장이나마 가족적으로 묘사한다. 감상적 자기 고찰, 가족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 비록 이단적 광신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적 가치를 언급하는 모습까지 드러내도록 그린다.

그래서 파스 솔단은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고통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즉 자신이 겪는 경험을 상징화할 수 있는 서사-이 불가능하게 될 때 그에 저항하는 행동은 어쩔 수 없이 비이성적인 것이자 비합리적인 것, 즉 정신병적 광기를 분출하는 것으로 치부된다”(서동진 2016, 94)는 사실을 마르틴과 헤수스를 통해 강변하고 있는 듯하다. 알베르토 토스카노는 『광신』에서 “광신을 무작정 병리화하는 담론의 이면을 의심하는 동시에 광신에 담긴 본질적인 정치적 차원들을 새롭게 되살린다”(425)라고 책의 취지를 밝히며, 역사적 맥락 하에서 광신을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광신적 움직임들이 비록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

의 정치적, 사회적 억압이 심화될 때마다 꾸준히 등장해 혁명적인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이 파국적이고 묵시록적인 광신적 행위가 비록 허구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정신적 이상이 아닌 역사적 복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반문하게 된다. 작가가 재현하는 광신의 징후를 살펴보면, 거부할 수 없는 비정상적 국가적/탈국가적 권력의 집행 앞에서 ‘내 자신의 광기로 그의 광기를 맞설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개인 차원의 도발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에서 박탈당한 이들이 그들의 박탈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있지 않고 움직일 때, 즉, “박탈의 위협에 처해 있거나 규범에 의해 불가능한 존재로 배제된 이들이 정치적 주체로 거리에 나설 때”(버틀러 2016, 343) 일종의 정치적 수행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마르틴과 헤수스가 겪는 박탈은 외부를 향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정치적 수행성마저 차단당한 극단적 성격의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실존인물들이 예술가와 범죄자로서 보여준 시각적 이미지뿐 아니라 작가가 재구성하는 이들의 의식/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이러한 정치적 수행성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의 ‘박탈’ 가능성을 광신이라는 기제를 통해 스스로 차단하는 방식, 즉 부정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실천하고 있다. 왜냐하면 혼돈의 인식세계에서도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그 힘들에 근본적으로 의존”(23)하지 않겠다는 선명한 의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주인공들은 정신 착란증, 조현병, 혹은 현실과의 괴리 등, 다양한 분열 양상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강력한 자기 보호와 창조적 열정을 통해 상황을 꿰뚫고 본질을 파악하는 이성의 명민함을 섬뜩하리만큼 날카롭게 보여준다. 보편적 인간을 능가하는 뛰어난 능력이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마르틴은 비정상적 단절과는 달리 지극히 정상적이고 고도로 계산된 그림을 창작하고, 헤수스는 정상적 현실 판단력을 기반으로 이중적 생활과 도주 생활을 지속한다. 조현병과 조절할 수 없는 폭력성 사이의 극단을 치닫고 있는 이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작가는 정상성에서 이탈을 한 ‘비합법적 체류자들’, ‘미등록된 이주자들’에게 이 사회가 행한 가혹한 권력집행을 단순히 고발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들이 이런 상황 하에서 보여준 미학적 반란 혹은 추악함의 미에 주목한다. ‘노르테’에 대한 반격은 파괴적이든 창조적이든 그들이 강력한 무언가를 창조함으로써 ‘노르테’ 내부에서 일정한 변화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 재인식이 또 다른 라티노들에게 삶의 창조적 소재와 미학적 고찰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미셸의 경우 헤수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극단적 광기를 자신의 이야기에 적용한다. 이는 파스 솔단이 『노르테』를 창작해 낸 동기와 과정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셸과 파비앙은 이 사회에 대한 대항,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서 구하고 있다. 마르틴은 정신병원내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자신만의 허구적 공간에 천착하고, 헤수스는 정신 도착 증세를 뒷받침하는 왜곡된 종교관을 기록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자신의 범죄에 관해 기록하길 원했던 헤수스는 살인행위를 스케치한 끔찍한 삽화를 덧붙여 노트를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이처럼 파스 솔단은 광기와 감금이 야기하는 통제의 틈새에서 생겨나는 반복된 기억과 생존의 의지, 저항의 뒤틀린 욕망에 미학적 반란과 정치적 새로움이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작가는 독자에게 살아온 나라와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른 사람들, 그들의 험난한 삶과 소외감이 극단의 상황에 이르러 창조해 내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숭고와 추함의 모순을 지니는지 묻고 있다. 작가는 이렇게 생겨나는 예술과 범죄 사이의 간극,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딜레마를 성찰하도록 요구한다.

### III. 나가며

미·맥 국경을 둘러싸고 감시와 감금,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의 역사적 반복에 대해 예술, 문학, 미디어, 민속, 증언 등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노르테』는 폭력의 희생자와 가해자가 세대를 달리하며 점차 증폭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사라진 실존 인물을 한 시공간으로 불러낸 현재의 주인공들, 이들에 육화된 작가의 목소리는 광기와 감금, 그것을 야기한 국경의 의미를 보다 실존적 차원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트라케로스 *Traqueros*』와 같은 철도 브라세로 노동자 관련 연구서, 라미레스의 미술, 국경 지대의 범법 행위를 주제로 한 소설과 영화, 치카노 감옥 예술, 국가 검열과 감시를 다룬 저널 등, 많은 자료들이 미-멕시코 국경이 생명(신체)을 담보로 권력이 자행되는 방식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치카노 감옥 예술을 다룬 『라핀타: 치카노 감옥 문학, 문화, 정치학 *La Pinta: Chicano Prisoner Literature, Culture, and Politics*』의 저자는 이 책 자체가 투쟁의 도구라고 밝힌다. 치카노 범죄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 시스템의 불합리한 인권의식에 대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감자들이 생산한 예술작품과 다양한 대중문화에 드러난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데, 파스 솔단이 『노르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사스키아 사센은 『축출 자본주의』에서 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약탈적 동력’이 축출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한다. 선진 경제와 첨단 기술, 자본주의에 의해 기획된 축출은 난민과 강제이주, 퇴출, 감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체제의 변두리’로 밀어낸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보다 더 엄혹한 축출로 인해 시스템에서 제거 당하는 위협에 처한다. 사센은 축출이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 내재되어 일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업, 빈곤, 자살, 실향, 추방, 수감 같은 현상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은 목적과 효과를 지닌다고 사센은 설명한다. 그들 모두 ‘쫓겨나는 것’이다.

주인공인 헤수스와 마르틴은 이런 의미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물론 이들이 축출된 배경과 동기는 사센의 설명에서 다소 비껴나 있지만, 여전히 축출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에 의해 밀려나는 상황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틴은 1900년 이후 멕시코의 정치 불안과 혁명이라는 사회적 소요 속에서 멕시코 사회를 떠난 경우에 해당하고, 헤수스는 1990년대 멕시코의 경제 위기로 인해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 그룹에 속한다. 미-멕시코 국경을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진입하면서 겪는 고통과 억압, 희생 등을 부각시켰다. 반면, 미국 사회 내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 즉, 비정상적 자아의 예술적 승화나 연쇄살인이라는 극단적 방식의 일탈은 탐구의 대상 밖이었다. 파스 솔단은 경계문학으로 정의되는 다소 담론 과잉의 성격을 지닌 작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멕시코 역사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개인이 놓일 수 있는 불행의 영역을 정신병과 악마성으로 확장시키고, 장르 문학이 지닌 대중적 전략을 차용한다. 이를 통해 생존의 불안을 야기하는 국경의 감시와 통제, 그것을 조소하는 개인들의 일탈이 낳는 비극적 결말을 미국 사회를 넘어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박탈에 대한 경중으로 들릴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을 지구 곳곳에서 살아있음을 담보로 국가적 관리를 당하는 이들이 유일하게 감행할 수 있는 비정상적 대응이자, 희생자라는 카테고리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박탈당한 자들의 반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미주로 좁힌다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남에서 북으로 향한다. 노르테의 문제가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민이 만드는 다양한 문화적·심리적 파장에 관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작품은 미-멕시코를 다룬 경계문학의 범주를 훌쩍 넘어 남에서 북으로 향하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머물 곳을 찾는 이야기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원과 감옥이 마르틴과 헤수스에게 집이 되었듯이, 작가는 현대인들이 머무는 곳이 감금과 광기라는 축출 기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 참고문헌

- 고미숙(2014), 『계몽의 시대: 근대적 시공간과 민족의 탄생』, 북드라망.  
 김정규(2013),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상징적 폭력: 범죄와 처벌의 차별적 인식」, 한국범죄학, Vol. 7, No. 1, pp. 153-194.  
 램케, 토마스(2015),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성보 옮김, 그린비.  
 박홍수(2015),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후마니타스.

- 알베르토 토스카노(2013), 『광신: 어느 저주받은 개념의 계보학』, 문강형준 옮김, 후마니타스. 어수웅/변희원(2013), “어쩌다 세상은 좀비·전염병에 열광하게 됐나”, 조선일보(2013.3.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9/201303190003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9/2013031900033.html).
- 이남섭(2001), 『멕시코 혁명과 종교』,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4, No. 2, pp. 317-356.
- 사스키아 사센(2016), 『축출 자본주의』, 박슬라 옮김, 글항아리.
- 서동진(2016), 『증오, 폭력, 고발 : 반지성주의적 지성의 시대』, 황해문화, 2016년 봄호.
- 장세용(2014),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밀입국자-‘생명정치’ 개념과 연관시켜』, 역사와 경계, Vol. 91, pp. 313-351.
-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2016),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응산 옮김, 자음과 모음.
- 카수토, 레너드(2012), 『하드 보일드 센터멘털리티』, 김재성 옮김, 뮤진트리.
- Borja-Villel, Manuel(2010), *Martín Ramirez: Reframing Confinement*, Madrid: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 Flores, Alejandro(2011), “Latinoamérica se ha desplazado al Norte”, *El Economista*, <http://eleconomista.com.mx/entretenimiento/2011/11/01/latinoamerica-se-ha-desplazado-norte>.
- Garcilazo, Jeffrey Marcos(2012), *Traqueros*, Denton: University of North Texas Press.
- Olguín B.V.(2010), *La Pinta: Chicana/o Prisoner Literature, Culture, and Politic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Paz Soldán, Edmundo(2012), *Norte*, New York: Vintage Espanol.
- Sánchez, Pablo(2016), “Después de cruzar la frontera se llega al límite: Norte, de Edmundo Paz Soldán”, *Anuario de Estudios Americanos*, Vol. 73, No. 2, pp. 483-498.
- Santos, Richard Z.(2016), “Interview with Edmundo Paz Soldán”, *Kirkus*, <https://www.kirkusreviews.com/features/edmund-paz-soldan/>.

## 이 은 아

서울대학교  
 novela63@snu.ac.kr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20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일

# US-Mexico Border: Aesthetics of madness and confinement

**Euna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Euna(2017), "US-Mexico Border: Aesthetics of madness and confinement",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8(2), 117-142.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Norte by Edmundo Paz Soldan, a renowned Bolivian Latino author. The novel mainly deals with violence, crime, and madness that lead to confinement and incarceration; these national/transnational biological powers are exercised to detain and expel illegal or unwanted immigrants, especially near the US-Mexico border area. The main characters, a railroad bracero and a Mexican criminal, embody the meaning of trains in Norte, which symbolize survival resources and free transportation that ultimately cause displacement, isolation, and death. The novel documents the influence of aesthetic rebellion or the possible transmittance of creativeness of schizophrenia and criminality, which are represented by the painful and destructive lives of these illegal immigrants who once belonged to, but disappeared in the vast territory of Norte.

**Key words** Norte, Edmundo Paz Soldan, illegal immigrant, Us-Mexico border, madness, confinement